

철도내 묻지마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현역 AK백화점 흥기난동 모방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, 잠복,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경찰과의 공조 확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범죄 예고 인지 즉시 8.3일부터 오리, 한티, 왕십리, 용산 등 범죄예고역을 포함하여 관할 총 19개 주요 역사에 총 77명을 배치하였으며,
- 주요 역사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, CC 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경찰 등과 공조하여 범죄 용의자를 발견 하는 즉시 검거, 용의자 도주 차단, 피해자 구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.
- 현재까지 소관 철도 역사에서 칼부림 등 흥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전동차내에서 오인 소동*을 일으킨 사람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경위를 조사중이다.
- * '23.8.4(금), 20:06분경(용산발 동인천) 전동차 내에서 소란자가 '위험해! 도망가!' 라며 뛰어가자, 놀란 승객들의 신고로 전동차가 비상정차(승객 2인 경상)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"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철도 에서 승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"을 강조하면서,
- 철도경찰에게는 "관할 역구내 등 순찰을 철저히 하고,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" 하는 한편, "철도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CCTV를 추가설치" 할 것을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영 (044-201-4617)

